

# Heifer International 참가기

김현영 펜실베이니아주 수의연구관, 재미한인수의사

유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 인구는 6,551,868,043명으로 추산 되었고 그중 약8억 인구가 굶주리거나 영양실조이며 24,000명이 영양실조로 매일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가난에 속하는 나라는 평균 가족 수입에 70%이상을 먹는데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입의 10%미만을 먹는데 지출하고 있다.

필자는 2006년 11월 10일간 Heifer International이 주관 하는 “가난과 기아의 극복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에 일환으로서 과테말라에 가난한 6개 농촌마을을 순회 하는 현지답사 연구팀에 일원으로 참석 하였다.

Heifer International 은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젖소, 젖양, 돼지, 양계 등을 무료로 공급하여주고 또한 사육하는 기술도 가르쳐 주어 가족들의 영양문제를 해결 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의 질을 향상 시키어 삶의 새 희망을 주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

자선 단체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125 국가에서 도와주며 활동하고 있다.

“Passing on the gifts” 그들이 선물로 받은 젖소, 산양, 돼지 등은 반드시 받은 것만큼 그 이웃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값진 철학을 갖고 있다. 즉 젖소에서 출산 하는 첫 암송아지는 다시 가난한 이웃에게 무료로 선사하여야 한다.

이들에 철학 모토는 분유를 주어 일시적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젖소를 주어 자신들이 기르면서 젖을 짜먹으라는 것이다.

즉 물고기를 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과 비슷하다.

1944년 처음으로 푸리토리코에 젖소 18마리를 보내 도와 주는 것을 시작으로 1947년에는 중국에 젖소 550마리를 보내 주었고 한국에도 6.25 전쟁 직후 많은 젖양, 돼지, 꿀벌 등을 보내 주어 도와주었으며 얼마 전에는 이북에도 젖양을 보내주어 돕고 있다.

과테말라는 멕시코의 남부 국경에 접한 중미 국가로서 미국 테네시주 크기만 하며 한때 고도로 발달된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산과 화산으로 인한 호수들이 많아 아름다운 나라이다.

특히 산이 한국산과 비슷하고 길도 꼬불꼬불하여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어 친근미를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36년간 내전이 있어 1996년 종전되기까지 무수한 양민이 학살되고 그중에도 남자들이 많이 죽어 과부와 고아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한국에 6.25후와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Heifer International에서는 현재 과테말라 12개 농촌지역에 \$852,137 예산으로 5년 동안 젖소, 돼지, 산양, 양계, 토끼, 꿀벌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번 과테말라 Heifer Project 농촌현장에서는 한때 굶주림에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이 우유 달걀 신선한 채소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시장에 팔아 그들에 생활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들판에 가서 노동을 하였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받기만 하는 자에서 남에게 주는 자로 바뀌는 자신감과 희망 있는 삶을 볼 수 있었다.

Guatemala Heifer Project에는 미국 평화봉사단원도 참여 하고 있었는데 대학까지 나온 그들은 그곳에서 차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농촌지역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을 볼때 미국민에게는 역시 기독교 사상이 많이 깃들여 남을 도와주는 정신이 많은 국민임을 즉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현재 세계적으로 7749명이 73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에만도 179명의 평화 봉사단원이 봉사하고 있으며 그중 한인 2세 여성도 한명 있어 반가움으로 만났다.

6.25 한인세대는 당시 미국에 여러 선교구호 단체에서 보내준 분유등 구호품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Heifer International 기아 해방 운동에 참여 하면서 옛날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못사는 이웃 나라에게 나누어주는 "Passing on the gifts"를 실천하여야 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돌아왔다.

실제 이번 여행은 필자가 은퇴후 과테말라 수의사 선교사의 길을 준비케 하는 인생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